

통계분류 뉴스레터

[통권 19호]

News Letter 2019 (2)

통계분류 뉴스레터

이용자를 위하여



- 통계청에서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분류를 기초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7종의 표준 분류(통계법 제22조의 규정)를 비롯하여 총 33종의 통계분류를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국내·외 통계분류의 개발 및 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통계분류 수요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유엔 및 국제기구, 해외 주요 국가 및 국내 관련기관의 동향, 그리고 관련 기고문 등 통계분류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통계분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통계분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동 뉴스레터에 분류와 관련된 기고문 게재를 희망하거나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042) 481-36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http://kssc.kostat.go.kr>

News Letter

CONTENTS



1 2019년 산업 특수분류 개정 결과

2 제5회 보건분류 자문위원 합동 워크숍

3 제4차 한국 범죄분류 공동세미나

4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개최

5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개소기념 국제 심포지엄

6 알쏭달쏭 분류사례 (Q&A)

7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일정 및 문의 안내

1

2019년 산업 특수분류 개정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10차 개정(2017년 7월)이후 관련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산업 특수분류의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올해 총 17종의 특수분류 개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2019년에는 4종의 특수분류를 개정하였으며, 이 중 공간정보산업, 로봇산업, 물류산업 특수분류는 변화된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등 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는 산업분류 연계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금년에 개정된 특수분류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는 ‘공간정보 관련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중분류를 신설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유사항목의 통합으로 중·소분류 5개가 감소하였다.

로봇산업 특수분류는 로봇산업의

최신 동향 및 성장을 반영하여 ‘협동로봇 제조,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제조’ 등 14개 소분류를 신설하였으며, ‘로봇 관련 서비스’ 대분류에서 유사분류의 대폭적인 통합·삭제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71개 중·소 분류가 감소되었다.

물류산업 특수분류는 관련 법령의 산업 범위를 고려하고, 통계 작성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물류장비 제조업’ 대분류는 삭제하고, ‘물류 관련 경영 컨설팅업’ 중분류는 신설하는 등 분류체계를 개정하였으며,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사항 반영 및 분류정확성 향상을 위한 명칭변경을 실시하였다.

한편, 올해 실시한 산업 특수분류 신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2종에 대하여 2년에 걸쳐

분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 작업을 통해 관련 분류체
계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림축산식품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산업 분야의 국가통계 생산
및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산업 특수분류 개정 주요결과 -

연도	개정 유형	특수분류 명	종수
2019	분류체계 개정	■ 공간정보산업 ■ 물류산업 ■ 로봇산업	3종
	연계표 정비	■ 콘텐츠산업	1종
2018	분류체계 개정	■ 정보통신기술(ICT)산업 ■ 해양수산업 ■ 재난안전산업(방재산업 통합)	3종
	연계표 정비	■ 관광산업 ■ 저작권산업 ■ 스포츠산업 ■ 디자인산업 ■ 에너지산업 ■ 공간정보산업 : ('19년 분류체계 개정)	6종
2017	분류체계 개정	■ 환경산업	1종
	연계표 정비	■ 물류산업 : ('19년 분류체계 개정) ■ 사회서비스산업 ■ 소방산업 ■ 재난안전산업 : ('18년 분류체계 개정) ■ 이력산업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6종
	분류 폐지	■ 자동차 관련 전용부품 제조업	1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경제부문 분류 정보 살펴보기  **Click !!!**

2

제5회 보건분류 자문위원 합동 워크숍

통계청은 통계작성 목적의 보건 분류 운영에 중립성을 기반으로 통계청 훈령(제234호)에 근거하여 통계분류업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통계청의 보건분류 자문위원 합동 워크숍은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에 보건분류 운영현황과 보건분류별 연구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5회를 맞이하였다.



▲ 개회사하는 강신욱 통계청장

합동 워크숍은 소식공유세션과 전문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소식공유세션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보건분류 최신 동향에 대한 국제 위원회의 특별 강연과 통계청 보건 분류 운영현황으로 구성되고, 전문 세션은 보건분류를 사용하는 현장의 전문가 참여로 수행된 3개 보건 분야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WHO-FIC(세계보건기구 보건 분류체계)의 서경 국가위원(사망 통계자문 그룹, 분류통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의 작성기준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와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 차이점 등 관련 정보를

* 보건분류 자문위원회(총 154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문위원(KCD 6기), 한국표준건강분류 자문위원(KCF 5기), 질병분류 상담센터 전문위원(3기)

공유하고, WHO-FIC 3대 보건분류의 운영·발전을 위한 각 위원회별 역할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통계청은 4종*의 보건분류 작성과 활용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업무를 소개하고, 분류 간 공동적용과 연계운영을 위한 중장기(2020년~2029년) 업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합동워크숍 주제발표 현장

제1전문세션 KCF의 전반적인 소개와 활용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KCD와의 연계 사용을 고려한 코딩 툴 개발 등의 내용

이 포함된 'KCF 평가도구 적용 및 활용'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국가단위의 통계 작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WHO-FIC 기능장애자문그룹 국제위원, 국립 재활원 재활병원부장 김완호).

제2전문세션 WHO의 요청(17개국 참여)으로 통계청에서 수행(4개 영역 305건, 6개 직종 61명 참여)한 국제건강행위분류(Beta-2)의 현장시험 추진 현황과 결과(총 코딩 4,725건(2위), 수행평가점수 4위)를 공유 하고, WHO에 지속적인 국내의견 개진을 통한 국제분류 개선에 기여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WHO의 ICHI 현장시험 한국 코디네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무기록팀장 신동교)

제3전문세션 ICD-11의 국내 도입을 대비해 추진한 한국 수정판 현장시험 결과를 공유하고, ICD-11의 개선이 필요한

* 4종 보건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한국표준건강분류(KCF),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 국제건강행위분류(ICH)

사안과 ICD-10과의 작성방식 차이점 등으로 인한 국내 도입과 보급·전파, 활용에 필수적인 준비사항으로 온톨로지 기반의 전산구축과 ICD-10과의 연계표, 상세한 코딩지침, 수준별 교육자료 마련을 제언하였다. (대한보건의료 정보관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연구소 이현경 선임연구원)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분류 개발·개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통계청은 워크숍에서 제안된 ICD-11 한국판 작성을 위한 국내 의학 분과별 위원회 구성 등과 같이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건분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표준건강분류’ 등 보건부문 분류 정보 살펴보기 📄 Click !!!

3 제4차 한국 범죄분류 공동세미나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11월 15일(금), 서울 JW메리어트에서 대한범죄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통계청은 관련부처, 통계작성 기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한국범죄분류 개발과정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4개년(2017~2020) 계획에



▲ 환영사하는 최성욱 통계청 차장

- * 01(사망을 야기한 또는 야기할 의도로 한 행위), 07(사기, 기만, 부패 관련 행위), 08(공공질서, 권위, 국가규범 위반 행위)
- ** 02(상해), 성범죄(03), 폭력동반 재산침해(04), 재산침해(05), 약물·향정신성 물질관련 위법(06),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법(09), 자연환경 위해(10), 기타범죄(11)



▲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현장

따른 3차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국제범죄분류와 연계·분석을 통한 한국범죄통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논의의 장이었다.

올해에는 국제범죄분류 대분류 11개 중 1차년도에 우리나라 죄명과 연계성을 분석한 3개 대분류*를 제외한 8개 대분류**에 대한 범죄통계 분류체계(안) 도출 및 통계작성 타당성 점검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성욱 통계청 차장의 개회사와 대한범죄학회

박정선 회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범죄통계 관련 전문가 특강과 연구결과 중심의 주제별 세션으로 이어졌다.

최성욱 통계청 차장은 “정부는 신뢰도 높은 범죄통계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공정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범죄분류 및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모두가 공감하는 한국범죄분류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범죄학회 박정선 회장은 축사에서 “범죄통계가 더욱 유익

하고 중요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세워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죄분류에서도 국제적인 표준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여 국제간 비교가 가능해지면 범죄통계의 분류 및 해석능력이 향상되고, 범죄통계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통계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제범죄분류’ 정보 살펴보기 📌 Click !!!

4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개최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5년 만에 분류체계, 범위, 기준 등이 큰 폭으로 변화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ICSE-18)* 채택(18.10.)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10월25일, JW메리어트호텔)에 개최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은 국제분류를 기초로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개정안 도출을 위한 기반 연구와 국내·외 노동시장 및 정책 환경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분류 작성을 위해 그 간의 연구성과** 및 개정 T/F 회의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마련하였다.

통계청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어 노동

관련 통계생산을 활성화하는 기회와 고용형태 관련 통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차관(임서정)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배규식)은 축사에서 새로운 종사상 지위분류가 마련되면 이를 기반으로 생산될 통계들은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과 각 종사자 집단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고용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와 기대감을 비추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통계국장(Rafael Diez de Medina)은 영상축사를 통해 개정 국제분류 결의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등

*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1차 연구용역 사업

통계 선진국의 면모를 보인 통계청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지속적 협력과 지원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하였다.

이번 개정 포럼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패널 토론 방식으로 구성 및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주제로는 통계청 통계기준과 손은락 과장이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추진 방안으로 개정 국제분류(ICSE-18) 소개 및 KCSE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는 기반연구와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에는 초안, 조정안, 잠정안을 거친 후 개정을 확정하여 표준분류로 고시하고, 2021년에는

개정내용 교육과 관련 자료집 발간 등 분류 활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정홍준 부연구위원이 고용형태 및 구조의 다변화와 dependent contractor의 유형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에 성재민 실장이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기반 연구 결과를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주요 쟁점 및 초안 도출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네 번째 주제는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남궁준 부연구위원이 개정 종사상지위분류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특징과 시사점을 고용형태 및 종사상지위 관련 국내 법령 및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 환영사하는 강신욱 통계청장

주제발표에 이어서 패널 및 종합토론은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개정T/F 민간위원장)를 좌장으로 정부부처, 학계, 노동계, 경영계 등 9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 (ICSE-18 도입 적절성) 25년 만에 개정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 -18) 도입은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다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며, ▣ (KCSE 개정 타당성)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은 고용시장 흐름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필연적 선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 (국제분류 적용 가능성) 기존의 임금, 비임금 이분법적 구조의 고용형태에서 ICSE 상 신설된 dependent contractor 등 적용가능성과 함께 특히 임금근로자 세분화에 따른 우리나라 항목(상용·임시·일용)과의 개념정리와 dependent contractor의

용어 결정 및 현 특고와 정합성 문제의 해결이 차기 과제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 (시계열 연계성) 개정 국제분류 채택으로 시계열 단절문제와 인식제고를 위한 시행 전까지 병행조사 실시와 ▣ (개정 추진 절차 및 시기) 종사상지위 관련 통계가 고용노동 정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초기단계부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여 행위 주체 간 분류 합의성 및 수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통계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모색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개정을 위한 지속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사회부문 분류 정보 살펴보기 ➡ Click !!!

5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개소기념 국제 심포지엄

통계청(청장 강신욱)이 주도하여 설립한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8월 20일(화) 대전시 서구 통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협력센터는 범죄예방 및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통계작성 역량 증진을 위한 UN협력기구로, 통계청과 UN마약범죄사무국(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간 약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협력센터는 대전시 유성구에 자리를 잡고, △범죄·안전·정의 관련 정책연구 및 지표개발 △범죄 통계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국내·외 범죄통계 지식 허브로서의 교류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날 협력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통계청과 UNODC 뿐만 아니라 UNESCAP, UNSIAP 등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기관, 형사사범·통계작성 기관 고위급이 다수 참가했다.



▲ 협력센터 개소 행사

(좌: Jean-Luc Lemahieu UNODC국장, 가운데: 강신욱 통계청장, 우: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

협력센터 개소를 기념해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범죄학 저명 학자인 런던대학 안보범죄과학과 Matthew Ashby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지역 거점 강화방안” 및 이를 위한 협력센터의 역할과 운영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환영사에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인 범죄, 폭력, 인신매매, 부패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가 필수 인프라”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범죄통계 작성 역량을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협력센터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제 심포지엄 주제발표 현장

통계청은 앞으로도 협력센터와 함께 범죄통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높이고 범죄통계 작성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제범죄분류’ 정보 살펴보기  Click !!!

6

알쏭달쏭 분류사례 (Q&A)

산업분류 Q1.

특장차 제조가 주업종이며 서비스 차원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특장차를 수리하는 활동의 산업분류는?

- 각종 자동차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새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는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으로 분류하며, 동일 사업체가 판매한 특장차에 대해 부수적으로 무료 또는 유료 수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으로 분류합니다.

산업분류 Q2.

합성수지에 유리섬유 물질을 함침하여 철근 대체용 유리섬유 강화플라 스틱(GFRP)제 형재(철근 형태)를 제조하는 활동의 산업분류는?

- 합성수지에 유리섬유를 함침하여 플라스틱 주요 특성인 강직하며 단단한 성질을 보유한 봉, 관 및 유사 형재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 합성수지에 유리섬유를 함침하였으나 유리섬유 주요 특성인 유연성을 가지고 주된 용도가 단열재, 전기 절연재, 흡음재 등으로 사용되는 유리섬유 제품(유리섬유 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직업분류 Q1.

요양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직업분류는?

- 직업분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므로 고용기관 특성이나 직종명만으로 직업분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기관 근무자도 개별 직무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합니다.
-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수급자가 처한 어려움 또는 문제를 진단, 해결해주는 일을 하는 자로써 복지 제공계획 수립, 상담, 지도, 사례관리, 자원 연결 등을 수행 하는 경우, '2471 사회복지사'로 분류하고,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를 통한 방문 가정 등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인 경우, '4211 돌봄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합니다. 한편, 의류, 섬유직물, 유사물품을 주로 손을 이용하여 세탁 및 다림질하는 경우,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으로 수급자 이동 및 업무용을 목적으로 비영업용 버스 또는 승합차,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873 자동차 운전원'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직업분류 Q2.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9300)의 예시로는 어떤 직무가 있나요?

- 고도화된 작업지시서나 기술 및 장시간의 훈련 없이, 몇 시간 또는 몇 십분 내의 작업 훈련만으로도 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주로 손이나 간단한 수공구를 이용하여 구성품을 조립하는 구슬 꿰기, 실타래감기 등의 단순 반복 작업이나 제조과정 상에 발생하는 세척, 재료 운반, 수동 포장과 같은 부수적 업무와 축삭, 시각 등을 이용해 하자가 있는 제품을 선별하는 업무가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에 해당하는 직무 예시입니다.
- 일반적으로 제조공장의 기계조작 보조업무는 견습 작업자가 수행하지만, 견습 작업자라 할지라도 기계조작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대분류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보건분류 Q1.

보험사는 통계청의 KCD 질병코딩지침을 근거로 질병의 진단 후 발생한 합병증은 분류하지 않는다면, 가와사키병과 함께 진단된 '관상동맥류 및 박리'에 대해 진단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주치의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보험사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KCD 질병코딩지침서의 관련 내용은 무엇인지요?

- 진단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진단된 질병이 합병증인지,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통상적 증상인지는 진료담당 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질병의 진행과정 중의 병태에 대한 KCD의 질병분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동반되고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병태는 기타진단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동반되지 않고,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병태는 기타진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위의 지침에 따라 진단된 '관상동맥류 및 박리'가 '가와사키병'의 진단을 만족하는 한 가지 증상이라면 '가와사키병'의 진단에 해당되는 코드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다면 두 코드는 함께 적용되므로 담당의사를 통해 확인 후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건분류 Q2.

Urachal infection을 L08.9(배꼽 감염)로 분류할 수 있는지요?

- 요막관(Urachus)은 방광과 요막을 결합하고 있는 태아의 관으로 완전히 막혀 섬유성 형태로 존재하게 되나 때로는 개방된 채로 남아 낭종(cyst)을 형성하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 질환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L00-L99) 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코드가 함께 적용됩니다.
 - N39.8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장애 / Q64.4 요막관의 기형

7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일정 및 문의 안내

주요 일정

월	주요 일정
1월	• 신규 특수분류 개발 관련 기초연구 실시(경제)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초안 마련(사회) •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 업데이트 의견 WHO 제출(보건)
2월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T/F 제1차 회의 및 1차 의견수렴(사회) • 2020년 보건분류 정책연구사업(4종) 발주(보건) • 통계용어표준대사전 편찬사업 추진(기준)
3월	• 가계수지항목분류 개정 기본계획 마련(경제)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조정안 마련 및 개정 2차 연구사업 발주(사회) • 질병분류 상담센터 전문위원회 제4기 구성(보건) • 2020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연구사업 발주(기준)
4월	• 한국표준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분류 색인어 개발(경제)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와 학과분류 연계표 및 2차 색인 DB 개발 계획 마련(사회) • WHO-FIC 연중회의 참석(보건)
5월	• 가계수지항목분류 개정 분류체계 초안 마련(경제)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T/F 제2차 회의 및 2차 의견수렴(사회)
6월	• 경제분류 색인 DB 갱신(경제) • 한국표준직업분류 색인 DB 및 이용지침서 보완 계획 마련(사회) • KCD 제8차 개정안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보건)

문의 안내

구분	주요 분류명	문의처
기준	국제범죄분류 등	042-481-3640
경제	표준산업분류, 표준무역분류, 표준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 등	042-481-2527
사회	표준직업분류, 표준교육분류, 행정구역분류 등	042-481-2358
보건	표준질병·사인분류, 표준건강분류 등	042-481-2204